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0. 2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20~10/24)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지역은행 리스크 전이 우려가 누그러지며 위험회피 분위기 완화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다카이치 일 총리 선출로 BOJ 금리인상 기대 낮아진 측면이 엔화 대비 달러 강세 견인하면서 큰 폭 상승
- 중반,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관세협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매도에 원화 약세 압력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 후반, 금통위 금리동결에도 대미투자 부담 등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심리와 역외 달러 매수세에 급등하며 장중 1,440원선을 돌파. 이어 주 후반,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에도 미 CPI 관망세에 하락폭 제한되며 1,430원대 후반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2.1	1,441.5	1,417.1	1,437.1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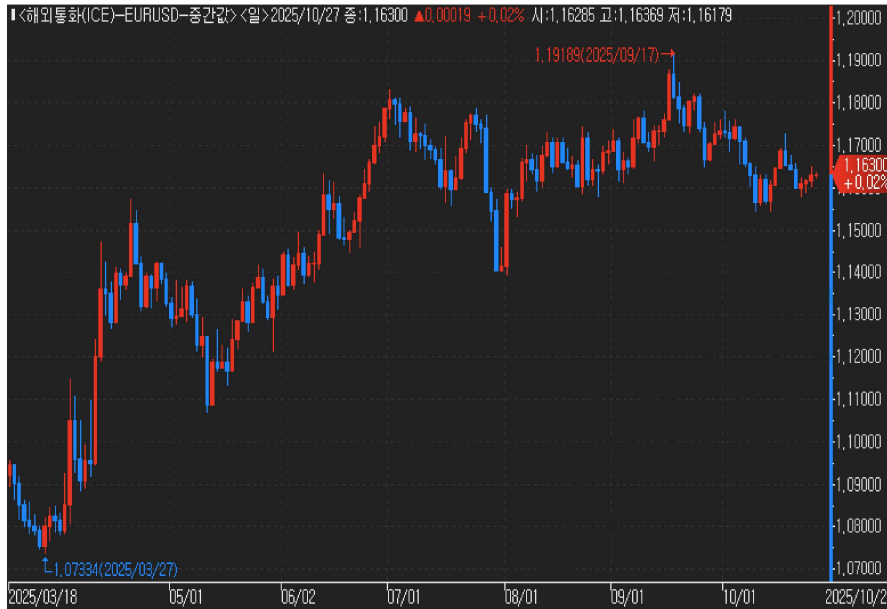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이 고조된 데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에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중국이 APEC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주요 무역 현안 관련 예비 합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는 양상. 이는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 환율 하락에 영향 미칠 요인으로 판단
-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 대미투자 방식에서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 이에 원화 약세 압력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 이어지는 측면이 하방 경직적 흐름을 견인할 전망

예상거래범위

1,420원 ~ 1,4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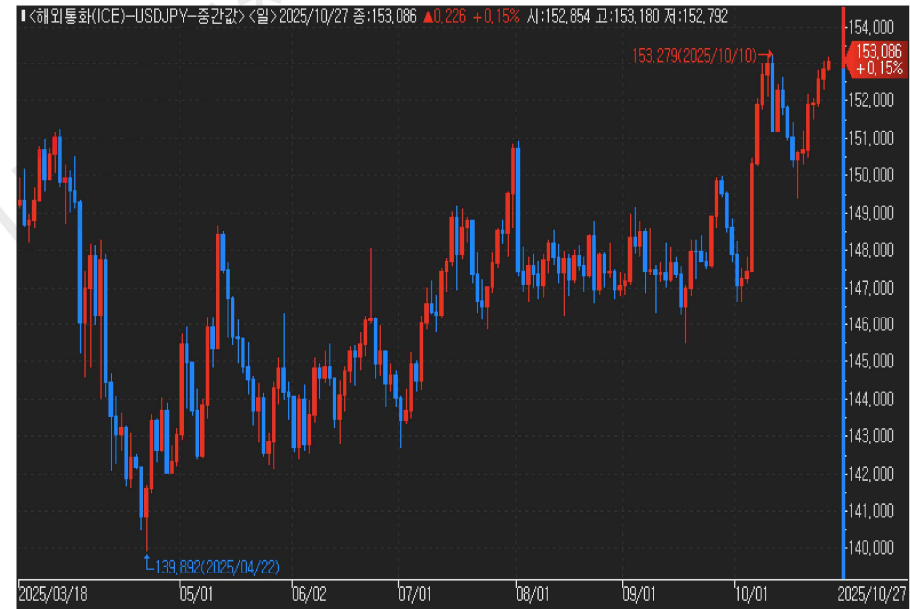
유로·엔화 동향 (10/20~10/24)



유로화 동향

- 주초, S&P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유로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 헝가리 회담과 관련한 트럼프의 부정적 발언 등 우크라전 종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현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ECB 부총재의 발언에 추가 인하 기대 제한된 측면 반영하며 소폭 반등
- 후반,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 국가주석 간 회담 일정이 확정되며 불확실성 일부 완화되자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독일 서비스업 PMI에 강세 흐름 이어갔으나, 사회당의 부유세 도입 요구 등 프랑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 나타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 재차 부각된 영향으로 강세폭 되돌림 보이며 1.16달러선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53	1.1675	1.1577	1.1628	-0.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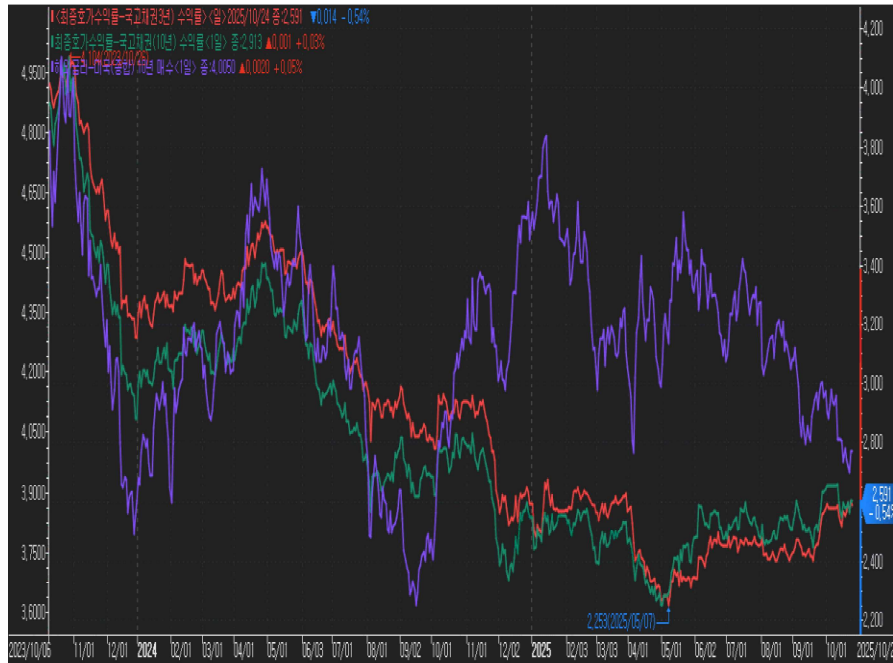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선출이 기정사실화된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우려 속에 큰 폭 약세 보임
- 중반, 정부가 BOJ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금리인상 기대가 열린 가운데 일본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세에 약세 폭 확대되며 장중 152엔선을 돌파
- 후반, 미국의 러시아 주요 석유기업 제재 조치에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추가 약세 견인하며 152엔대 진입. 이어 주 후반, 일본 9월 CPI가 전년대비 2.9% 오르며 이전 대비 상승폭 확대되었으나, 다카이치 내각 하에서 일본은행 금리인상 여부는 불확실할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 흐름 이어지며 152엔대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0.6	153.1	150.3	152.8	+2.2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13~10/1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한은 총재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조짐 언급과 향후 가계대출 관련 불확실성 언급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미 국채 금리가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인플레이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코스피 신고점에 따른 위험선호 분위기와 이를 앞 닦아온 금통위 경계감에 상승 전환
- 중반, 미 정부 섣다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상황 우려 반영 및 금통위 경계감, 미-중 무역 갈등 고조된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
- 후반 들어, 한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 기조 확인에 국고채 금리 하락세 이어간 양상이었으나, 기자간담회를 통한 한은 총재 언급이 반도체 관련 수출이 높은 수준 둔화 예상 및 전체 수출도 미국 관세 영향에 감소할 것이란 언급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 상당부분 완화된 국면. 이어 주 후반,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에 따라 장중 금리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흐름 보인 가운데 혼조세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조짐 속 관세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에 사상 처음 코스피 3,800선 돌파. 이어 뉴욕증시 기술주 훈풍에 3,900선에 근접하는 국면을 보였지만, 일부 고점 인식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며 강보합 시현
- 중반 들어, 미-중간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우려 등으로 3,800선 하회 후, 저가 매수세 유입된 국면
- 후반 들어, 코스피가 사상 첫 3,900을 터치했으나, 고점 부담에 따른 기관 매도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동시 매도 영향 등으로 약세 전환 후, 주 후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전일 뉴욕금융시장의 반도체, AI 업종 낙관론 등이 코스피 주요 재료로 작용하며 3,950선 돌파하며 마감